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익산 미륵사 창건의 발원지는 누구

여러 주장 종합하면 '사택왕비' 발원

1. 서동요와 선화공주

인간의 삶 속에는 신화와 설화가 중첩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 이상은 종종 신화로 탄생된다. 반면 인간의 의식과 현실 사이에서 설화는 탄생한다.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진실'은 종종 충돌하거나 뒤집힐 때가 있다. 권위 있는 저작에 의해 굳어진 우리의 상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노래 중의 노래이자 가사 중의 가사인 '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과 선화는 훗날 왕과 왕비가 되어 익산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기억돼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 '기이' 편의 '무왕' 조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근래에 미륵사 서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에 적힌 백제왕후인 백제 좌평(佐平) 사택(沙宅) 적덕(積德)의 딸로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백제 왕후인 적덕의 딸은 단지 서탑의 사리봉안의 발원지로만 한정해야 할까.

'사리봉안기'의 기록대로라면 미륵사의 창건 발원지는 사택 적덕의 딸인 왕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왕' 조의 선화공주 발원기록은 폐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사리기'의 문장에서 '우리 백제 왕후' (선화공주)와 '사택 적덕의 딸'을 병렬로 두고 발원지를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아야 할 부분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신라와 백제 간의 결혼 동맹이 성립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 긴장완화와 양국의 이해를 위해 백제 왕과 신라 공주의 결혼동맹은 이루어졌을까. <삼국사기> 백제 동성왕 15년 조에 의하면 왕이 사신을 신라왕에게 보내어 혼인을 청하자 신라 비처왕이 이찬 비지(比智)의 딸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의 결혼동맹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무령왕을 이은 성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45년을 재위했던 위덕왕 이후 그의 동생인 해왕이 재위에 올랐으나 2년 만에 승하했다. 다시 해왕의 아들 법왕이 재위에 올랐으나 또 2년 만에 승하했다. 이제 신하들은 '다루기 쉬운 이'나 '세력기반이 없는 이'를 왕위에 올림하고자 했다. 해서 익산의 마룡지(馬龍池) 근처에서 어머니와 마을 캐먹고 살던 아이(童童)였던 '장' (孺)은 몰락한 왕족으로서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당시의 정치상황을 염두에 두면 그는 위덕왕의 아들로 추정되지만 <삼국사기>는 법왕의 아들로 적고 있다. <삼국유사>는 과부의 아들로 적으면서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2. 서탑 사리봉안기의 이해

왕위에 오르기 전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서라벌로 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마[鬘]를 나눠 주며 가까이 지나다가 그들을 꺾어 노래를 부르게 했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얼어두고/ 맛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순식간에 서라벌 안에 퍼져 궁중까지 알려졌다.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간하여 공주를 멀리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귀양을 떠나는 길에 서동이 나와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연한 만남을 기뻐하며 그를 믿고 따라가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를 믿게 되었다.

선화는 서동에게 어머니가 준 금을 내 놓으며 이것으로 함께 백제로 가서 생활계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서동이 크게 웃으며 자신이 마을 캐던 곳에는 황금이 진흙처럼 섞여있다고 말하였다. 그곳으로 가서 구름처럼 모은 금을 익산 용화산(龍華山) 사자사(獅子寺) 지명(知命)법사의 처소로 가서 신라로 금을 운반할 방법을 물었다. 공주가 편지와 함께 금을 사자사 앞에 옮겨다 놓자 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에 신라 궁중으로 날라다 놓았다. 진평왕이 그 신통한 변화를 기이하게 여겨 더욱 존경하고, 항상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고, 서동은 이로 인해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려고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자니, 미륵 삼존이 못에서 나타났다. (왕과 왕비는)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못을 매울 일을 물었다. 법사는 신통력으로 산을 무너뜨려 하룻밤 사이에 못을 매울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법상(法像)의 세 존전(尊殿), 탑(塔), 남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현판을 미륵사(彌勒寺)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백공(百工)을 보내 돌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 절이 남아있다. 이처럼 '무왕' 조의 기록에 의하면 미륵사 창건의 발원지는 무왕의 왕후인 선화공주가 분명하다. 하지만 서탑 '봉안사리기'는 사택 적덕의 딸로 적고 있다. 이 두 기록의 상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서동과 무왕은 동일인이 아니다'



익산 미륵사지 5층석탑(서탑). 미륵사는 창건 당시 목탑을 가운데 두고 동서 1개씩 석탑이 존재한 3원 3탑 가람배치였다.

사리봉안기 공개 후 창건설 분분

왕권강화 묘사위해 서동설화 도입

고 보아 "무왕설화는 사실(史實)의 기록이 아니라 무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비범(非凡)의 인물로 표현하고 성화(聖化)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구전설화를 차용(借用)했다가 무왕 개인의 이야기로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기도 한다. 또 "가난한 생활을 하던 서동 시절에 이렇게 많은 금을 모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왕이 즉위 이후 상당한 양의 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즉위 후 왕실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을 확보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금광을 개발하고 사금을 채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설화적 요소를 역사적 사실로 해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 무왕과 별도(別都) 익산

서탑 '사리봉안기' 공개 이후 미륵사를 둘러싼 학

자들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 절 창건의 중심신앙이 무엇이며, 둘째는 발원지가 누구인가이다. '무왕' 조목에 의하면 '전' (殿)과 '탑' (塔)과 '낭무' (廊廡) 각 세 곳이므로 발굴 결과와 같이 3원 3탑의 가람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륵사 구조는 세 불전[三殿]에 미륵 삼존불을 모시는 미륵 삼회(三會)의 도량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미륵사상에 입각한 가람배치로 보면 된다. 일부 학자는 발원지의 주체를 의식하여 "이 3원의 배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가람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곧 법화사상의 '회삼귀일' (會三歸一)이고, 서탑의 석가모니 진신사리는 법화신앙자 사택왕후의 모신 것이므로 미륵사는 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의 조화에 의해 창건된 대가람"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하나의 절 이름을 두고 몇 가지 사상의 근거로 해명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대개 절 이름에는 그 절의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다. 때문에 미륵사의 경우 미륵사상이 창건의 배경임은 분명하다. '무왕' 조 기록처럼 미륵사상이 전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다른 사상을 끌어들이 필요는 없다. 몇 개의 사상적 배경을 거론하게 된 것은 '사

리봉안기'의 사택왕후 기록이 나오면서 부터다. 또 다른 학자는 "사리봉안기와 '무왕' 조 기사의 등가설(等價說)에 입각하여 선화공주를 창건발원자로, 사택왕비를 서탑 사리봉안의 발원자"로 보기도 했다. 이와 달리 어느 학자는 미륵사의 창건 주체는 무왕이며, 그는 백제의 부흥을 위해 익산을 경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륵사를 창건했고 서탑의 발원지는 '사리기'에 적힌 대로 사택왕후며, 그가 무왕의 '빈부' (嬪婦)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선화공주는 소비(小妃)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학자는 '미륵사는 '선화공주'가 삼원 삼탑 대가람의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백제왕후'가 '가람'의 삼탑 중 서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학자는 "사리기든 '무왕' 조든 왕과 왕비(사택씨 혹은 선화공주)는 함께 발원하고 있으며, 가람의 일부인 탑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둘러싼 전체 즉 '가람을 조립하면서 00년 월일에 사리를 봉안한다'고 사리기에 세긴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면 절을 짓는 데 단계별로 발원자를 상징하는 것은 탑이 가람 조영의 마지막 단계라는 일련의 과정에 위배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미륵사의 창건 발원자가 왕비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왕비 발원설은 수백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리봉안기'의 사택왕비는 당대의 기록이고 선화공주는 후대 설화의 주인공 이기만 할까.

아니면 청동기시대 이래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 반도로 내려온 마한연맹(馬韓聯盟) 중심지의 하나였던 익산 지방의 왕조에 얽힌 기억이 '후조선=마한의 무강왕 사설'로 이어진 결과일까. 하여튼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

미륵사는 미륵 삼회 도량 분명

일부학자 미륵·법화 신앙 조화 주장

다. 인간의 삶은 종종 사실과 진실의 경계에서 피어 난다. '왕명' (王名)에서 풍기는 것처럼 풍채가 훌륭했고, 뜻이 호방했으니, 기상이 걸출했던 '무왕' (武王)은 강력한 백제를 세우려고 했다. 어렵게 재위에 오른 무왕은 고구려와 신라에 밀리며 나라가 위축되었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도 부여에서 멀지 않은 익산에 임시 수도인 '별도' (別都)를 시설하였다. 익산에 별도를 둔 것은 그곳이 그의 성장 거점이자 신라로 진격하는 교두보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와 '왕흥사' (王興寺)를 세우고 회복을 통해 백제의 강역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칙복무 : 도량계, 다게, 향화계, 오공양, 음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제1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인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음승으로서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위요, 사용서원, 거불, 도량성, 종승,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육, 신중령,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힌소, 봉청(깃소리), 39위, 복청계, 고힌청, 현좌계, 진령계, 칠연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3. 고급 : 시다림, 다비, 일반정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에수제, 수륙제, 종사이운, 폐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계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호 010-4466-3575